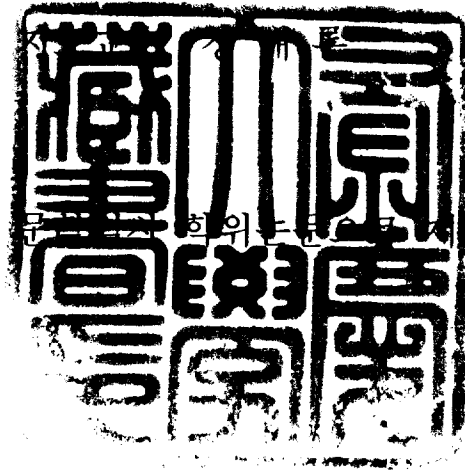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줄리어스 씨이저』 : 브루투스를
위한 변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교 영

김교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12월

주 심 문학박사 박 양 근 (인)

위 원 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문학박사 정 해 룡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로마 공화국의 멸망	7
III. 독재와 저항의 이데올로기	14
IV. 편법과 이념	51
V. 결 론	62
인 용 문 헌	65

A Defence For Brutus in *Julius Caesar*

Kyo-young Kim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hakespeare's *Julius Caesar*, part of the Roman trilogy, dramatizes the process of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The complex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Shakespeare's *Julius Caesar*, first of all, stem from an ambivalent attitude toward Julius Caesar and his aristocratic assassins which Roman historians such as Plutarch and Appian had. The lasting ambiguities of *Julius Caesar* have remained unresolved for centuries. When Shakespeare uses their works as the basis of his Roman plays, he does not intend for them to be resolved while his dramatic themes in the play clearly show that Brutus's cause is just.

The most commonly held interpretations of *Julius Caesar* may include views that the play is a vindication of absolute monarchy; a defense of absolutism. This point of view is, however, something of an oversimplification. It ignores, to begin with, the fact that Caesar is not a king but wants to be king with no legitimate claim, but with the support of the mob. This inordinate desire for kingship is the height of Caesar's tragic folly, the supreme manifestation of his hybris, which finally leads him to commit the political crime. Caesar ruined the Roman republic out of his lust for power.

The Republican ideal of his society inside Brutus makes him act even to the necessity of murdering a friend. His sense of honor

is beyond moral and goes to even irrational extremes because of its relation to the life and death of the Roman Republic. He firmly believes that he should destroy tyranny as his honorable duty.

Throughout the play Antony's cheating or Cassius's bloody strategies against Antony can never be useful skills or tools. In spite of Brutus's defeat at Philippi, he finally wins the whole world and the future.

Brutus shows that men need not give way before the spirit of the times. His seeming futile gesture helped, not Rome, but humanity. In the result his defeat and death did not seem to make his enterprise futile but make him an eternal symbol of freedom against tyranny. Shakespeare seemed to firmly believe that the times were against Brutus but his cause was just.

I. 서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최초로 편집된 1623년의 첫 2절판(the First Folio)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극은 희극(Comedies), 사극(Histories) 및 비극(Tragedies)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지만, 후에 비평가들은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줄리어스 씨이저』(*Julius Caesar*), 『코리오레이너스』(*Coriolanus*),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 이 세 작품을 특별히 로마극(Roman Plays)으로 부르고 있다. 1590년대에 셰익스피어가 쓴 극 중에서 9편의 사극은 영국의 정치사회에 관한 것으로 마지막 극인 『헨리 5세』(*Henry V*)를 쓰는 동안 그는 새로운 정치적 분석을 위해 토마스 노스(Thomas North)가 1579년에 번역한 플루타크(Plutarch)의 『영웅전』(*Lives of the Noble Grecians and Romans*)에 의존하면서 로마극의 집필에 착수했다.

『줄리어스 씨이저』는 이 새로운 로마극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공화정치가 군주정치로 바뀌려는 로마의 정치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시 말해서 줄리어스 씨이저가 왕으로 등극하려는 시기를 배경으로 삼는다.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사건은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매우 흥미를 끌었던 정치적 문제였으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치 및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도 비평가들 사이에 양극단을 달리는 논란이 많은 일종의 문제극이다. 18세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리어스 씨이저』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씨이저는 로마 공화국을 위협하는 독재자인가, 아니면 안토니가 말

한 것처럼 로마에 풍요와 평화와 질서를 이룩한 “유사 이래 가장 고결한 인간”(3.1.56)인가?

둘째, 브루투스의 이념은 설득력이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결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판단과 사고능력에 문제가 있고, 아집이 강한 자기중심적 인물로서, 자신이 중오하는 씨이저리즘의 속성들을 자기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이상주의자인가, 아니면 로마 공화주의자로서의 이상을 가진 가장 고결한 이성적 인물인가?

셋째, 캐시어스는 “여위고 먹지 못해서 깡마른 듯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위험한”(1.2.191-192) 인물로서 씨이저에 대한 사적인 증오와 질투심 때문에 반란을 모의하고 조직한 인간인가, 아니면 로마의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그의 죽음은 곧 로마공화국의 종말을 의미하는(5.3.60-63) 인물인가?

안소니 밀러(Anthony Miller)에 따르면 브루투스와 반란자들은 로마에 혼란을 가져온 장본인들이며, 그들의 정치적 식견이 로마의 비천한 민중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며, 그 원인을 브루투스의 멍청한 머리 탓이라고 주장한다(188-189). 반면, 알렉산더 웰쉬(Alexander Welsh)는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것은 그의 명예와 공적인 의무감의 발로라고 해석하여 씨이저 살해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변호하고 있다(504-505). 국내 연구로서 배신환은 캐시어스의 쪽지 투척 장면과 수뢰 사건 등의 장면들을 거론하면서 브루투스는 신념이 없는, 단지 주위의 부추김에 뇌화 부동되는 열간이 또는 이기주의자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52), 이환태는 안토니를 그의 간교함과 편법주의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241)로 평하는 반면, 브루투스는 공익이라는 명분 뒤에서 숨어서 자신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정당화를 획책하는 기회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244).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이 극에서 씨이저의 살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

하여 교묘하다고 할 정도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객들의 반응들 엇갈렸고 썬더와 살해와 브루투스의 반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목적과 주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제목의 타당성에 대한 양극화된 의견들은 수세기 동안 그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극의 기본적인 소재로 택하면서도 이들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셰익스피어가 어떤 특정한 입장이나 편향된 시각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극의 해석에 있어 어떤 하나의 통일된 해답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실의 양면에 대한 면밀한 탐사를 이끄는 변증법적 기법이나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다는 빌라도식 사고방식에서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숨겨져 있는 사실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극이 그렇듯이 그는 극 중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되는 논점들을 자신이 직접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시세로(Cicero)의 대사는 이 극에 대한 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란 자기 방식으로 이 세상만사를 해석하기 마련이며
그 결과 본래의 그 의미들과는 아주 동떨어질 수가 있지요.

But men may construe things, after their fashion,
Clean from the purpose of the things themselves. (1.3.34-35)

시세로의 주장에 따르면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은 관객이나 독자 개개인의 그 주관적인 인상에 이끌려 그때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밀드레드 하트속(Mildred Hartsock)은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썬더』를 통해서 진

리의 상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진리의 그 불가해한 모순성(irresolvable paradox)이 극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이 결정한 것 바로 그것이며, 역사 또한 구조물(construct)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62). 그러나 『줄리어스 씨이저』의 애매성은 극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 독자나 관객들을 고의적으로 도덕적 판단의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 자체에 있거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들처럼 16세기 영국의 현실적인 정치적 민감성을 회피하려는 어떤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브루투스의 동기는 옳았다는 자신의 정치적 주제를 이 극의 서막에서부터 끝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까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역사와 등장인물에 대한 그의 다층적인 시각과 주제를 점진적으로 표출하는 극의 전개방식이 이 극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 해석에 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줄리어스 씨이저』의 비평적 해석과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비평가들의 논문과 비평들을 접함으로써 발견한 점은 씨이저의 독재 행위에 대한 비판의 잣대는 비교적 관대하거나 매우 애매모호한 반면,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동기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대한 공격이 총체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차적이거나 부분적인 그의 약점들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그의 장점들을 비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그러한 논란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규명하면서 일부 비틀어지고 심지어 조작된 듯한 브루투스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평가로 되돌려 그를 변호하고자 한다. 브루투스의 경우 그 동기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고 가중되어 왔던 것 같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 이념을 체득하면서 로

마에서 성장한 로마 시민이며, 당시로서는 로마 공화정의 버팀목인 원로원의 일원인 브루투스로서는 씨이저에 의한 독재와 일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체제로의 전환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었고, 전통의 로마 공화정 체제에 대한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로마를 방어하려는 했던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브루투스의 경우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종의 감상주의적 발상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살해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매정한 인물로 그를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로마 공화정을 불법으로 파괴하려는 씨이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원인과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살인행위 그 자체 또는 씨이저가 브루투스의 후원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에만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대고 그 상황과 동기에 대해서는 굳이 시선을 외면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극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와 편견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동기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 명료하여 논란을 일으킬 소지 자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씨이저의 친구가 여기 있어 씨이저를 죽인 이유를 내게 묻는다면
 이것이 내 대답입니다. 씨이저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씨이저가 죽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씨이저가 살고
 그대는 노예로 살다가 죽기를 더 바라십니까?

If then that friend demand why Brutus rose against
 Caesar, this is my answer: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Had you rather Caesar were living,
 and die all slaves, than that Caesar were dead, to live all free

men? (3.2. 18-21)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씨이저를 살해한 그의 동기가 일견 명료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4세기동안 그의 진실된 살인 동기가 논란거리가 되어 온 점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그가 한 말은 진실하였다는 점을 이 극을 통하여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로마 공화국의 부패와 멸망과의 관계 분석을 다루고, III장에서는 씨이저의 일인 지배와 왕이 되려는 야망을 정당화 및 합리화하는 독재옹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와 이에 대립하여 씨이저를 살해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브루투스과 반란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저항 이데올로기를 다루며, IV장에서는 브루투스의 패전과 반란의 실패와 안토니의 편법이 승리한 의미를 분석하여 곧 바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안토니와 로마 제국 자체의 운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 V장은 브루투스의 씨이저 살해가 정당했다는 이 극의 주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명예로운 삶은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로마 공화국의 멸망

기원전 44년의 로마에서는 귀족, 민중, 그리고 군사 실력자가 3대 정치적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구축되어 있던 정치적 함수 관계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이미 부패와 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공화국의 현재와 로마 공화국의 멸망이라는 미래를 담고 있다. 씨이저의 정복 전쟁의 결과 로마는 북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페르시아에서 스페인까지 펼쳐지는 제국의 중심이지만, 이미 로마의 내부는 부패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원로원의 지배는 그들 스스로의 도당화로 약화되고 대신 군부 세력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는 계급 사이의 분열로 고통 받고 있었다. 오랜 투쟁의 결과 평민계급은 그들의 대표자 호민관을 선출할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평민들은 로마 공화정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줄리어스 씨이저』의 서막에서 호민관 마룰루스(Marullus)와 플레비우스(Flavius)가 규탄하는 것처럼 로마 민중의 대다수는 건실한 시민적 책임을 담당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는 무지하고 우매하여, 군중심리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은 이미 소수 권력 엘리트들의 수중에 들어 있었다(Maus 1525-1526).

귀족, 군벌, 그리고 민중이라는 3대 정치세력이 지배하던 이러한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Bloom 80-83).

『줄리어스 씨이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당시의 로마는 귀족계층과 도시 빈민계층인 평민에 의하여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다만 권력 균형의 풍향에 따라 일시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

사회적 계층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의가 상존하였다. 따라서 이들 두 집단을 서로 결속시키는 것은 어떤 고상한 이념이 아니었고, 이들 빈민계층을 끌어들이고 사로잡았던 것은 보잘 것 없이 작았던 이권들이었다. 씨이저는 무력, 매수, 또는 선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이 집단들을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계층은 원로원이나 전쟁 지도자들이다. 로마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 계층의 품성은 무정부 상태와 일인지배의 독재, 이 양쪽 모두를 용납할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공화정의 법 앞에 복종하였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명예로운 의무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바라는 대가는 단지 명예뿐이었으며 그래서 로마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하루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위대한 로마의 역사를 창조한 토양이었다.

로마를 형성한 다른 한 쪽은 도시빈민계층들이다. 이들은 지극히 생물적인 1차적 욕구에 얽매어 있으며 정치적 자질이 전무하고 쉽게 뇌화부동된다.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신념을 바꾸며 용기와 지혜를 가진 척하지만 시련과 시험을 받으면 곧 바로 비천하게 된다.

『줄리어스 씨이저』는 폼페이군의 군대를 피멸시키고 돌아오는 씨이저에게 민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이 로마 거리의 풍경은 극 전체의 정치적 상황과 로마 군중의 역할과 실상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민관 마룰루스와 하층 평민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는 로마의 거리 분위기만큼 자유롭고 격의가 없어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로마의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들 민중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는 그 운명이 뒤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씨이저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며 정복자이지만 민중을 주무르고 매수하여 왕이 되고자하는 정치가이기도 하다. 씨이저는 비록 폼페이를 무력으로 제압하여 시민들의 갈채를 받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 공화정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이저는 하층 계급들, 즉 변덕스런 군중들을 이용하여 왕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씨이저 자신과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가져온 비극이 된다(Ribner 11).

극의 서막은 씨이저리즘(Caesarism)과 로마 공화국의 운명을 매우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의 군중들은 매우 충동적이며, 군중심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극의 종말에 안토니(Antony)는 이들을 실제로 로마의 운명을 “수리해 버리는” 폭동에 이용한다.

평민 2: 나으리, 저희들에게 그렇게 눈알을 부라리지 마슈. 자꾸만

그런식으로 눈알을 부라리시면, 나리를 수리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마룰루스: 자네 거 무슨 말이냐? 나를 수리한다는 말, 너 이 건방진 놈아?

평민 2: 물론, 나으리를 구두처럼 저희들 마음대로 수리한다는

말씀입쥬, 나으리.

COMMONER 2: Nay, I beseech you, sir, be not out with me:

yet, if you be out, sir, I can mend you.

MARULLUS: What meanest thou by that? Mend me, thou saucy fellow?

COMMONER 2: Why, sir, cobble you. (1.1.17-20)

셰익스피어는 이들 하층 계급 집단의 비이성성과 변덕스러움이 로마의 역사와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극의 바로 그 첫 장

면에서부터 로마로 돌아오는 씨이저와 함께 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은 브루투스와 캐시어스가 운명적인 연설 대결을 벌이는 로마 포럼에 다시 등장하여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운명을 충동적으로 결정해 버린다. 그들은 브루투스의 연설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바로 이 로마의 군중들은 뒤이어 이어지는 안토니의 교활한 연설에 선동되어 환호를 보내며 광분하여 폭동을 일으킨다. 순식간에 그들은 브루투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반란자들의 집을 불태운다. 그리고 시인 시너(Cinna)가 반란에 가담한 공화파의 시너(Cinna)와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살해해 버린다. 이와 같이 로마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로마 군중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때문에 어빙 리브너(Irving Ribner)는 『줄리어스 씨이저』의 극중에 등장하는 악당은 브루투스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로마의 군중들이라고 주장한다(11-15).

시너: 전 씨이저를 죽인 반란자의 그 시너가 아닙니다.

폭도1: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문제는 이놈의 이름이야; 이 놈의 이름을 그 심장에서 뜯어낸 뒤에 놓아 줘.

CINNA: I am not Cinna the conspirator.

1st PLEB: It is no matter, his name's Cinna; pluck but his name out of his heart, and turn him going. (3.3.31-33)

극의 서막에 등장하고 있는 두 호민관 마룰루스와 플레비우스의 처형은 로마 공화정은 이미 로마에서 허울뿐이며 씨이저의 독재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로마 민중들을 향한 마룰루스의 절규는 조리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선량한 공화국의 신민들을 선동한 죄로 간주되어 그들

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중지”(1.2.277)된다. 씨이저의 동상을 훼손한 것과 같은 사소한 일로 민중의 대표자인 호민관들이 처형된 것은 씨이저는 이미 독재자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주제를 셰익스피어는 극의 서막에서부터 매우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영광스런 로마 공화정에 이어 위대한 로마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이와 같은 절규나 비판의 목소리, 또는 장엄한 웅변들은 거리와 원로원에서 거의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주 매장되어 버린다. 비천한 민중들의 귀는 이들의 비장한 목소리들을 거의 듣지 못하며, 씨이저가 던져주는 미끼에만 구미가 당기는 자들이다. 독재자는 보잘 것 없는 미끼로 다룰 수 있는 민중의 욕구를 맞추어 줌으로써 로마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공화정 치하에서의 민중들은 실제로 도시를 지배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피선거권은 없었지만 행정 장관 선거에 참여하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민중의 정치 참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배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는 일을 막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부패한 정치 집단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정적이나 정치적 경쟁자들을 파괴하는데 민중들을 이용한다. 원로원에서 집정관 후보 3명을 지명하면 민중들은 이들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데 이 경우 민중들의 투표권 행사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부패할 경우 독재자는 평민들과 야합하여 원로원의 귀족계급을 무력화하거나 매장시키는데 악용되었다. 기원전 44년의 로마의 부패 통치학은 이와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공화국의 패망과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부패와의 관계는 바로 씨이저리즘의 추악한 부패의 통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칙과 이념에 충실하며, 품위를 지키며 명예로운 삶을 지향하려던 자는 더 이상 로마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코리오레이너스(Coriolanus)는 부패한 호민관들과

그의 로마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타협을 거부하였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정치적 집단으로 인정할 수 없는 로마의 군중들과 화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직에서 탄핵을 받아 로마에서 축출되는 수모를 막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씨이저는 자신의 계급을 배신하고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비천한 속성에 잘 적응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 민중들을 정치와 역사적 안목과 관심이 없고 부패한 권력과 독재자와 훌륭한 지도자를 구별하지 못했다. 씨이저는 이 민중들을 지배를 통하여 그의 동료 계급인 원로원을 지배하고 속박하였는데, 이는 극 전체를 통하여 원로원들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태에 잘 드러나 있다.

.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멸망은 우연히 또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기원전 44년의 로마는 그 토양이 이미 도를 지나칠 만큼 오염되고 부패하여 로마 공화국은 발전과 번영은 커녕 생명력을 계속 보전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를 부패로 오염시킨 주범이 누구인지를 실증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앞장서서 이들을 베일로 감싸주기 때문이다. 정치의 승자들은 항상 역사의 승자였다. 그들은 승자의 이데올로기를 개발한다.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들 승자의 이데올로기로 덧칠이 된 냅마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씨이저』를 통하여 감추어진 로마 공화국의 패망사의 베일들을 벗기고 그 죽음과 파멸의 방정식을 도출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미 오염된 로마 공화국이라는 토양이 생산한 씨이저와 로마 민중들에게 브루투스라는 등장인물은 오히려 이방인처럼 생소하고 거추장스런 존재였을 것이다.

씨이저리즘이란 씨이저의 야망이 로마 군중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그 수단은 매수와 권모술수, 그리고 폭력과 공포였다. 그러나 이 씨이저리즘은

바로 씨이저 자신이 살해되는 원인이 되고 브루투스가 그를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브루투스는 씨이저를 살해한 것을 “야망의 대가”(3.1.84)고 생각한다.

로마 공화정의 최후는 이와 같이 독재자와 민중의 비천한 욕망들의 야합으로 빚어진 비극적 산물이었다.

III. 독재와 저항의 이데올로기

『줄리어스 씨이저』는 다양한 비평적 관점과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이 극을 쓴 동기와 그 주제는 물론, 심지어 누가 주인공인지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지 않고 있는 일종의 문제극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로마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셰익스피어가 의존한 로마 역사는 이를 기술한 사람에 따라 대체적으로 세 갈래로 갈라진다. 단테가 쓴 『신곡』은 중세적 군주론을 옹호하여 씨이저의 일인 지배를 옹호하고 있으며, 16세기 영국의 르네상스적 입장은 브루투스의 행위와 동기를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옹호하고 있다. 이 두 관점은 비교적 단순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줄리어스 씨이저』의 주된 역사적 소재를 제공한 출전이었고,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되는 플루타크(Plutarch)의 『영웅전』, 그리고 역시 셰익스피어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가 아피안(Appian), 타키투스(Tacitus), 그리고 성 아우구스틴(St. Augustine) 등은 로마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양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씨이저의 살해, 심지어 로마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해석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 필요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지만, 특히 로마 역사에 대하여 양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의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공화국은 장엄하였고 동시에 로마 제국은 위대하였다. 그러나 로마 공화국은 부패하였고, 더욱이 씨이저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일인 통치에 의한 절대군주의 출현이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로마 공화국의 위대한 역

사는 위대하였다. 동시에 위대한 로마 제국은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공룡처럼 자멸을 자초했거나, 신에 버금가는 존재가 되고자 한 로마인의 위대한 공지는 교만의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바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자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의 섭리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로마 공화국은 일시적이었고 로마 제국이 그 뒤를 잇는 것이 신의 섭리였다. 그러나 브루투스의 패배는 일시적이었고 그는 영구히 명예를 얻었다. 로마 공화국과 그 제국은 동시에 위대하였지만, 그 종말 또한 신이 뜻이었다. (Siegel 100-107)

둘째, 셰익스피어는 로마 역사에 대해 이중적인 관점을 취하는 플루타크와 아피안의 로마 역사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 어니스트 스칸저(Ernest Schanzer)는 셰익스피어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관점으로 관객과 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극 전체가 문제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06). 그리고 『줄리어스 씨이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열된 독자의 반응은 다만 극적 효과의 의도된 결과인지, 또는 작가 스스로 로마 역사에 대한 분열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작품 전편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한다(306-308).

셋째,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점이 양립적이고 또한 작품을 쓴 작가의 관점이 애매모호할 때, 독자의 시각 역시 각자의 입장과 배경,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재 군주론을 옹호하는 중세적 인습에 여전히 젖어있는 시각은 이 극의 주제가 씨이저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6세기 영국의 르네상스적 인식을 가진 관객이나 독자는 브루투스의 살인동기와 행위를 이해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제 3의 관점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 작품 속에 있는 주제의 양극성을 논하면서 극의 주제는 물론 심지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극이 근본적으로 논리적 명쾌성이 없고 작품의

주제에 대한 극적 전개 of 통일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줄리어스 씨이저』는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 이중적 혹은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극의 주제는 앞서 인용한 스캐너의 주장과는 달리 작품 전편을 통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개과정에서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관점의 양극성 또는 다의성을 작가의 의도적인 극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가들의 그러한 관점들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플루타크는 씨이저를 살해한 것은 신하(subject)의 반역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시민(citizen)이 왕이 되려하는 것이 공화정 체제하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그의 『영웅전』에서 피력하고 있다. 씨이저의 살해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생각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플루타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에서 『헨리 6세 2부』(1598)까지는 그의 태도나 입장은 일인 지배의 군주제를 지지하는 중세적 입장을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이후 마지막 영국 사극인 『헨리 5세』(1599)를 쓰는 동안 그 논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 극을 쓰는 동안 그는 토마스 노스가 1579년에 번역한 플루타크의 『영웅전』을 읽었고 이것이 씨이저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해석과 견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극의 서막은 원로원의 공화파들의 씨이저 살해동기를 엿보게 한다. 호민관인 플레비우스와 마룰루스는 로마 군중들이 그들의 영웅이었던 폼페이 군대를 괴멸시키고 돌아오고 있는 씨이저의 군사 퍼레이드에 환호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군중들을 질타한다. 이 장면에서 당시 로마 공화정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던 씨이저와 그리고 그가 매수와 권모술수로 지배하던 민중들의 정치 사회적인 역할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어서 씨이저의 동상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씨이저의 날개에서 깃털들을 뽑아 버리지 않는다면
필경 그는 평민들의 머리 위로
비상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그 노예적 공포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

These growing feathers pluck ed from Caesar's wing
Will make him fly an ordinary pitch,
Who else would soar above the view of men
And keep us all in servile fearfulness. (1.2.76)

씨이저의 독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출발점은 로마 공화국의 멸망과 로마제국의 출현을 필연적인 역사적 운명(historical destiny), 신의 섭리(Miller 180-182), 역사적 운행의 필연적 작용 또는 제국으로의 이행기(홍유미 14)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현상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로마의 역사, 정치, 사회적인 배경과 원인에 대한 논증은 생략하고 있다. 동시에 로마의 생산주체가 노예였고 그 생산성의 저하는 로마가 경제적으로 주변국들의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Siegel 101)을 간과하면서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국으로의 변천이 마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신의 의지나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송일상 48)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으로의 이양이 씨이저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이며 씨이저의 독재는 한 개인의 야심이나 권력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현실 정치구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시대적 요청(송일상 26)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브루투스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씨이저의 독재를 불가피하게 만든 상황적 조건은 신의 의지와 역사의지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론적인 비약에서 출발한 하

나의 논증될 수 없는 가설에 불가한 주장이 독재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이다.

독재 이데올로기를 성립시키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소위 시대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씨이저의 일인 지배에 저항한 브루투스를 우둔하고 추상적이며 독선적인 인물(Hartsock 57)로 만드는 일이다. 독재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일인 지배의 절대군주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응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대신 브루투스와 같은 비판하는 자들의 인격을 폄하하여 파괴함으로써 비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브루투스를 포함하여 다른 로마 공화파 반란자들은 근시안적이며 현실적 시대적 역사적 요청을 보지 못하는 인물들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역사적 안목에 있어서 로마군중들은 씨이저의 일인 지배에 의한 독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독재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오히려 독재 이데올로기의 모든 주장에 그 신뢰와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들은 씨이저의 독재가 시대의 흐름인 현실이며 이에 대한 로마 민중의 역사적 안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실이란 독재가 필요한 현실이며 역사적 안목이란 씨이저의 독재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지 않는 로마 민중들의 안목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밀러(Miller)는 『줄리어스 씨이저』를 브루투스와 씨이저가 표방하는 두 이념들의 충돌이 야기한 사건이며,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것 때문에 로마가 누리고 있던 평화와 번영이 파괴되고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182-188). 따라서 브루투스는 로마의 일인 지배에 의한 통치는 신이 부여한 정치적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루투스에 대한 인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브루투스는 인간과 정치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부족하여 실패한 공화주의자이다. 브루투스의 도덕성과 고결한 성품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가 씨이저를 죽인 것은 좁은 안목 때문이며, 씨이저는 브루투스에 죽을 수 있을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로마에 작용하는 힘의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씨이저의 독재가 역사적 필연성이나 신의 의지와 관계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브루투스는 확증이 없는 고도의 추상적 이념에 근거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과 로마 공화국에 혼란을 야기한 자이다. 이 주장은 씨이저가 현재로서는 독재자가 아니며 독재의 증거가 없는데 캐시어스의 부추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며, 공화주의자들의 행동은 로마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사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3) 브루투스는 캐시어스를 비롯한 열등한 인간들에게 휘둘려서 자신도 후회하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이다. 브루투스의 살해 동기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동시에 그는 주관이 없이 현실적인 책략가인 캐시어스에게 부추김을 당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캐시어스의 행위들을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심을 강조함으로써 브루투스의 인격은 물론 그의 동기를 천박한 것으로 만든다.

(4) 브루투스는 씨이저가 자신의 후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살해한, 배은망덕하고, 냉혈한 자기중심적 지도자이다.

이상과 같은 브루투스에 대한 독재 이데올로기의 평가는 ‘현실적 인식이 부족한 가장 고결한 인간’이라는 매우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흉물스런 얼굴’(Proser 211)은 반란자들과 브루투스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독재 이데올로기의 시각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브래들리(A. C. Bradley)에 따르면 브루투스의 씨이저 살해 동기는 우매한 민중과 이를 이

용하는 독재 권력의 야합을 거부하며, 로마 공화국의 운명을 사수하려는 명예심과 의무감에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브루투스의 행위는 클로디우스(Claudius)를 살해한 햄릿(Hamlet)의 고뇌와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45). 씨이저를 살해한 반란자들을 ‘흉물스런 얼굴’로 만드는 것은 씨이저를 이러한 불가항력 같은 시대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다가 희생당한 “순교자”로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로마에 독재가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이들의 주장들은 군부독재 시대였던 한국적 시대상황과 그 정치적 구호(propaganda)와 유사하다.

독재 이데올로기가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것은 『줄리어스 씨이저』의 주제를 절대군주의 지배를 옹호하는 그들의 관점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 충실한 맥콜럼(M. W. MacCallum)은 셰익스피어가 이 극을 쓴 동기가 절대군주의 옹호라고 주장한다(27). 튜더 왕조가 겪고 있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당시의 영국 국민들은 강력한 절대군주를 염원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표현한 것이 이 극의 주제라는 것이다. 이 극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과 양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군주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편리하다. 이들 관점의 애매성으로 인하여 씨이저의 독재와 그의 씨이저리즘으로 야기된 로마 공화국의 부패와 박해가 거꾸로 그의 독재체제를 정당화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데올로기로 곧잘 이용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원천적인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파괴한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질서를 정치적인 선전구호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나라와 민중의 구세주로서의 이미지 조작에 열중하고 또한 성공한다. 이와 같이 독재 이데올로기가 대중적 이미지 조작에 성공한 구세주가 씨이저이다. 그리고 그가 살해되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려다 희생된 로마 제국을 위한 순교자로 만든

다.

이렇게 조작된 구세주로서의 이미지 조작은 독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되며, 그들의 독재 지배에 ‘신성불가침’의 가면을 씌울 수 있다. 이 신성불가침이란 어떤 반대나 저항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호민관 마룰루스와 플레비우스처럼 사소한 일로 처형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밀러는 그의 논문 「로마국(*The Roman State*)」에서 독재 이데올로기적인 논리로 리가리우스(Ligarius)가 공화정 반란파에 가담하려는 동기의 맹목성을 입증하려 한다(188-9).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도 좋다.

브루투스가 나를 이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To do I know not what; but it sufficeth

That Brutus leads me on, (2.1.333-334)

이 대사를 통하여 밀러는 리가리우스가 브루투스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표현하는 말의 의미를 뒤집으면서 공화파의 반란자도 공화파적인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두목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무리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법적인 지도자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공포에 의한 무조건적인 맹종을 교묘하게 동일시하고 있다. 지도자란 독재 집단이건 민주 집단이건 정치적 속성과 정통성과 관계없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있고 이 지도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화파 반란군을 독재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밀러의 시도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주장일 뿐이다. 독재와 그 하수인들이 독재체제의 비밀로 삼는 사회적 분란과 불안은 오직 브루투스와 같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

해 선택된 지도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밀러는 극의 첫 장면에 나오는 로마의 거리의 분위기는 바로 씨이저와 안토니,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씨이저리즘에서 야기된 바로 그 사회적 분란과 불안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브루투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밀러는 또한 로마에서의 절대 군주의 필요성을 인식한 존재로서 로마의 하층 민중을 오히려 브루투스보다 그 안목과 양식에 있어서 한 수 앞서 있는 집단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시와 논리적 비약은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보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씨이저 독재의 합리화와 브루투스의 씨이저 살해와 반란의 부도덕성을 동시에 증명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독재 이데올로기는 그 태생적 허위 때문에 침묵을 선호한다. 로마에서 공화정 원로원의 유명무실화에 의한 응변의 무력화는 곧 씨이저에게는 감추어야만 할 것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194-195). 씨이저가 “침묵”(1.2.290)의 사회를 조장하려는 시도는 독재자들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불안증세가 심해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폭력에 의한 공포를 조장하려 한다. “많이 읽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예리한 지성을 가진 캐시어스(1.2.201)의 미덕은 “잘 웃지 않는다” 그의 진지성과 더불어 더 이상 사회적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소외와 박해의 대상이 된다. 침묵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회적 통합’이란 정치적 구호를 앞에 내세우고 자행되는 일인 독재 지배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편의주의에 순응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차단되거나 차단되며, ‘정신이상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를 인격적 언어적 파산자로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썼던 당시 영국의 튜더 왕조(Tudor)의 왕권

신수설의 이론에 의하면, 국왕은 합법적인 혈통을 통하여 신이 지명한 권력의 대행자로서 씨이저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씨이저를 살해한 사실을 반역자에 의한 왕의 시해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드러내고 일이 되는 것이다. 플루타크도 씨이저 비극의 핵심은 신민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자격이 없는 시민의 불법적인 왕권에 대한 씨이저의 욕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의 입을 통하여 브루투스가 “로마인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인간”을 피력하게 함으로써 씨이저의 죽음과 그리고 브루투스 대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극의 대단원을 브루투스의 유명한 이 마지막 대사(5.5.35-39)와 함께 막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 극의 주제를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ibner 10-13).

나는 옥타비우스와 안토니가
비열하게 쟁취한 영광보다,
이 오늘의 패전으로 더 큰 영광을 얻었다

I shall have glory by this losing day
More than Octavius and Mark Antony
By this vile conquest shall attain unto. (5.5.35-39)

이러한 극의 주제를 부정하기 위하여 독재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캐시어스이다. 플루타크는 캐시어스가 사적인 감정으로 씨이저를 증오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캐시어스는 그의 요람에서부터 독재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Hartsock 60)라고 기록하고 있다.

캐시어스는 독재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로마 공화국의 시민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임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이것은 장군님의 주검이야, 멧셀라,
캐시어스라는 장군은 이미 죽고 없어. 오, 지고 있는 태양이여,
그대 붉은 태양이 밤을 향해 지고 있듯이,
캐시어스의 시대도 붉은 피 속에 사라졌다.,
로마의 그 태양은 지고 말았고 우리의 시대도 가고 말았다.

No, this was he, Messala,
But Cassius is no more. O setting sun,
As in thy red rays thou dost sink to night,
So in his red blood Cassius' day is set.
The sun of Rome is set. Our day is gone; (5.3.59-64)

캐시어스의 기질은 스스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도 추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네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면
어떤 과감도 없이
적절하게 비춰줄 수 있을 것이야.
자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자네의 모습을.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말게, 브루투스.
내가 해프게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된다면지 또는
내가 아무에게나 손을 내민다고 우정을 맹세하거나,
또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다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던가,
내가 술좌석에서 호언장담을 늘어놓아서
나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So well as by reflection, I, your glass,
 Will modestly discover to yourself
 nor with extenuation
 That of yourself which you yet know not of.
 And be not jealous on me, gentle Brutus:
 Were I a common laughter, or did use
 To stale with ordinary oaths my love
 To every new protester; if you know
 That I do fawn on men and hug them hard,
 And after scandal them; or if you know
 That I profess myself in banqueting
 To all the rout, then hold me dangerous. (1.2.71-77)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 동기를 파악해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혐의나 죄상을 캐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케시어스가 아니라, 오히려 씨이저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씨이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극의 전편을 추적하면서 씨이저를 살해하는 반란을 조직하고, 그 반란에 브루투스가 가담하는 과정에서 케시어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추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빈틈없는 반란의 조정자였다. 그는 씨이저 살해 전야의 천재지변을 씨이저의 독재에 대한 “하늘의 범상치 않은 분노 (strange impatience of the heavens)”(1.3.61)로 해석하면서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자신의 동기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다. 그는 반란의 성공을 위해 브루투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한다. 그

리고 마침내 씨이저의 살해에 성공한 이 극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장면에서 그는 평화와 자유와 해방을 외친다.

누군가가 공회당 연단으로 가서 목이 터져라 외쳐라,
해방과 자유와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왔다라고.

Some to the common pulpits, and cry out,
Liberty, freedom and enfranchisement (3.1.80)

캐시어스의 외침은 그들의 반란과 씨이저를 살해한 행위가 명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자신들의 조국에 자유를 쟁취해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될 것을 믿고 있다. 캐시어스는 그들의 반란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부터 또 얼마나 수많은 세대를 거치고 또 거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또한
우리들의 이 드높은 광경이 반복하여 상연되고 또 될 것인가!

How many ages hence
Shall this our lofty scene be acted over,
In states unborn accents yet unknown! (3.1113-115)

캐시어스의 동기와 목적이 허영심의 발로였다는 견해는 사실을 비틀고 왜곡시키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캐시어스가 브루투스를 반란에 가담하도록 “유혹”했다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캐시어스가 브루투스의 마음속에 씨이저를 배반케 하는 독약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그 독은 이미 씨이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들어나서 퍼져나갔

던 것이다.

이 극의 1막 2장은 씨이저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독약이 발생하여 퍼져 나가는 과정을 거의 연역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브루투스는 “요즈음 어떤 마음의 갈등, 나에게만 어울리는 어떤 특이한, 악한 생각”(1.2.37) 사로잡혀 친구를 동한히 하고 남 모를 마음의 “전쟁”(1.2.45)을 치르고 있다고 캐시어스에게 고백한다. 즉 “어떤 특이하고 악한 생각”은 캐시어스가 “유혹”(1.2.302)하기 전에 이미 브루투스의 심중에서 고통스럽게 움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론 씨이저의 살해에 대한 브루투스의 고뇌이다. 캐시어스는 여기서 브루투스의 씨이저에 대한 살의를 감지하고 자신의 ‘거울 이론’(1.2.50)을 가지고 브루투스가 난국의 로마공화국을 위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을 암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혹이라기보다 반란 의지의 타진이고 일종의 혁명의 모의일 뿐이다. 그리고 씨이저의 야망에 대해 최초로 우려를 나타낸 사람도 캐시어스가 아니라, 바로 브루투스이다.

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지? 시민들이
씨이저를 저들의 왕으로 추대할 것이 두렵구나.

What means this shouting? I do fear the people
Choose Caesar for their king. (1.2.78-88)

브루투스가 씨이저가 왕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이 시점이 바로 반란 공모의 시발점이다. 이 장면은 캐시어스가 브루투스를 부추기는 장면이 아니고 서로의 의지를 탐색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장면은 이들이 주도한 반란의 동기와 목적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다.

캐시어스: 그렇군, 자네 그것이 두렵니?

그렇다면, 자네가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브루투스: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캐시어스.

그러나 난 그를 매우 사랑하지.

그런데 나를 이렇게 오래 여기 잡아두는 이유가 뭐냐?

자네가 내게 전하려는 말이 무어냐?

만약, 그것이 공익을 위한 그 무엇이라면

한 눈에는 명예를, 그리고 그 다른 눈에는 죽음의 각오를 보여 봐.

그리고 나는 명예든, 죽음이든 그 어느 쪽이든 좋아.

신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도록 해주셨거든

캐시어스: 난 자네 속의 덕망을 알고 있지.

자네의 걸모습을 알고 있듯이.

명예는 역시 내 애기의 주제이기도 해

자네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나와 똑 같은 것을 두려워하며 사느니

기꺼이 죽겠어.

우리는 똑 같이 양육되었고 그와 똑 같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는데 말이야.

CASSIUS: Ay, do you fear it?

Then must I think you would not have it so.

BRUTUS: I would not, Cassius; yet I love him well.

But wherefore do you hold me here so long?

What is it that you would impart to me?

If it be aught toward the general good,

Set honour in one eye, and death i' th' other,
 And I will look on both indifferently;
 For let the gods so speed me as I love
 The name of honour more than I fear death.

CASSIUS: I know that virtue to be in you, Brutus,
 As well ad I do know your outward favour.
 Well, honour is the subject of my story.
 I cannot tell what you and other men
 Think of this life; but for my single self,
 I had as lief not be as live to be
 In awe of such a thing as I myself.
 We both have fed as well, and we can both
 Endure the winter's cold as well as he: (1.2.78-98)

케시어스는 다만 이 씨이저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반란에 끌어들이려 한다. 브루투스와 시세로와 같은 출중한 인물들은 만일 반란이 성공할 경우 그를 무색한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케시어스는 플레비우스와 마물러스와 그리고 브루투스를 움직인 그 동일한 동기를 실천하고 성공시키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씨이저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급의 이익을 위협하면서까지 로마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욕이 없었고, 다만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간직해 온 정치적 이상을 전복하려는 위험을 제거하려 하였을 뿐이다. 그가 반란을 조직한 것은 선과 악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절대적 가치는 가지는 이와 같은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가 동원한 편법 때문에 악당(villain)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는 브루투스 못지않게 로마 공화국을 사랑한 인물

로서 로마의 “태양”답게 필리파이 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절규를 남기고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이리로 내려오게; 더 이상 볼 것 없어.

오, 나 같은 비겁자가 어디 또 있어,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전우가 내 면전에서 생포가 되는 꼴을 다 보다니!

Come down ; behold no more.

O, coward that I am, to live so long,

To see my best friend taken before my face! (5.3.33-35)

이와 같은 캐시어스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평가에 비추어 보면, 그는 고결한 로마인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캐시어스가 파렴치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자기 이익만 쫓는 정치적 인물로 표현되는 것은 독재 이데올로기의 논리 때문이다. 독재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들은 필요에 따라 진리를 만들어 낸다. 그들은 권력의 단맛에 중독된 자들로서 그들은 이 권력을 독점하고 영구화하기 위하여 역사와 자신의 조국까지 희생시키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독재자를 로마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로마의 태양”(5.3.63)과 같은 인물인 캐시어스를 가장 추악하게 일그리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캐시어스의 인물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 곳을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장면은 없다. 캐시어스는 군사 전략가이다. 군사적 작전에는 승리가 최고의 선이다. 영웅적이며 고결한 선구자의 품성을 가진 브루투스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독자와 관객은 놓치기 쉽다.

『줄리어스 씨이저』에서 호민관 마를루스와 플라비우스의 처형(1.2.290)

은 사실 씨이저의 독재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이 “침묵”을 강요당한 것은 이미 로마에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허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로마 공화국의 거리에서 벌어진 그 정도의 사소한 일 때문에 호민관들이 처형되었다면, 씨이저리즘은 이미 자아불신에서 오는 불안의 신경증 증세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씨이저리즘의 말기적 현상으로 캐시어스에 대한 씨이저의 공포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말기적 독재자는 캐시어스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날카롭게 사리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두려운 것이다.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일 테지만, 이를 두려워하는 독재자 특유의 의식 노이로제 때문에 독자나 관객들은 고소를 금하지 못할 장면이다.

내 주위엔 머리를 제대로 빗고 있는
잠을 제대로 잔 그런
살이 찐 자들을 배치하게
저어기 캐시어스는 깡마르고 굶주린 모습이야 |
그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 그런 자는 위험한 법이야.

Let me have men about me that are fat,
Sleek-headed men, and such as sleep a-nights.
having the hair well combed
Yond Cassius has a lean and hungry look;
He thinks too much: such men are dangerous. (1.2.189-192)

씨이저가 선호하는 인간 유형은 캐시어스와는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고, 머리를 제대로 빗고 있는 살이 찐” 자들이다. 씨이저의 표현은 세계를 정복한 장군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의 그 치졸함을 드러내고

있다. 씨이저에게는 캐시어스가 특별히 싫은 이유가 또 있다. “많이 읽고, 그래서 예리하게 다른 사람들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씨이저인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 그럴 경우
가장 내가 두려운 자가
저 피골이 상접한 캐시어스야.
그는 책을 많이 읽어.
그는 관찰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의 행동을 꿰뚫어 볼 수가 있지. 그는
자네처럼 놀이도 좋아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지.

Yet if my name were liable to fear,
I do not know the man I should avoid
So soon as that spare Cassius. He reads much,
He is a great observer, and he looks
Quite through the deeds of men. He loves no plays,
As thou dost, Antony; he hears no music.
as you are. (1.2.196-201)

씨이저는 사실 혁명가적인 캐시어스의 내성적 기질을 절묘하리만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캐시어스와 같이 음악도 놀이도 싫어하는 자들은 성실하고 실천적이지만, 이들은 시민들을 움직이고 선동할 수 있는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씨이저는 캐시어스의 웅변에 로마의 민중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씨이저 자신이 이미 권모술수와 뇌물로 마비시켜 둔 민중들의 의식들을 일거에 깨어나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씨이저는 캐시어스를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제 몫보다 더

큰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빼뜰게 만 바라보는 불평분자”(1.2.202-206)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서 그의 인품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

그는 잘 웃지를 않지. 웃어도 자신을 비꼬는 식이지
만약 그가 웃었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실에
자신을 비꼬는 식이지.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지.

Seldom he smiles and smiles in such a sort
As if he mock' d himself, and scorn' d his spirit
That could be moved to smile at any thing.
Such men as he be never at heart's ease
Whiles they behold a greater than themselves,
And therefore are they very dangerous. (1.2.202-206)

웃음이 없다는 것은 사교성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캐시어스는 매우 진중하며, 진지한 성품의 소유자로 감정의 절제력이 강한 내성적인 인간임을 보여준다. 씨이저가 싫어하는 캐시어스의 이와 같은 단점들은 사실 그의 장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씨이저는 이미 노쇠하고 지나치게 교만하여 자신이 두려워해야할 대상조차 판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음 로마 포럼에 등장하는 장면은 씨이저가 잠재적 독재자가 아니라 이미 독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캐스카(Casca)가 “모두들 조용하십시오. 씨이저께서 말씀하십니다.”(1.1.5)라든가, 안토니가 “말씀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분부대로 하겠습니다.”(1.1.12)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씨이저가 이미 절대 권력자에 버금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브루투스의 독백(2.1.10-34)은 추상적이 아니고 매우 논리적이다. 그의 독백은 씨이저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 권력 찬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가 뱀의 알이라면, 그 알이 부화하여, 악으로 자라나기 전에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씨이저가 죽어야만 할 이유이다. 브루투스의 주장은 씨이저가 왕에 등극하여 실제로 독재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그를 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적 전개와 주제에 따라 그의 독백은 세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살인의 동기가 전 로마 시민 또는 전체 로마 공화국(the public body)의 이익을 위해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건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야.
나로써 그와 맞서 칼부림을 벌릴 이유는 없지만,
전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야.

It must be by his death; and for my part,
I know no personal cause to spurn at him,
But for the general. (2.1.10-12)

둘째, 브루투스는 권력의 자리가 사람의 인품을 변화시키거나 잠재해 있는 씨이저의 독사와 같은 속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아마 왕관을 쓰게 될 거야. 그럴 경우
그의 천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다.
독사가 기어 나오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눈부시게 햇빛이 빛나는 날이다.
 이렇게 그 눈부신 왕관을 쓰는 날엔 어떨 것인가?
 아마 우리는 그에게 독침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권력에 자비가 사라지면 그의 자의로 남용된 권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야.

He would be crown' d:
 How that might change his nature, there's the questions.
 It is the bright day that brings forth the adder,
 And that craves wary walking. Crown him? - that?
 And then, I grant, we put a sting in him,
 That at his will he may do danger with.
 Th' abuse of greatness is when it disjoins
 Remorse from power; (2.1.10-19)

브루투스에는 권력에 일단 중독되면 겸손을 버리고 오만해져서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게 되는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염려한다. 이런 속성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되는(2.1.19-31) 씨이저를 브루투스는 “독사의 알”로 비유하면서 그의 야망의 알들이 독사로 부화되어 그 독성에 온 세상이 오염되는 대재앙이 오기 전에 그 알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은 증거가 그에게 엿보이는 것이 희박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그가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경우,
 그가 극단으로 흐를 것은 뻔한 이치이며,
 그래서 그를 뱀의 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 알이 부화가 되면, 뱀이 되고, 이는 그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알에서 깨어 나오기 전에 죽여야 한다.

Then lest he may, prevent. And since the quarrel
Will bear no colour for the thing he is,
Fashion it thus: that what he is, augmented,
Would run to these and these extremities;
And therefore think him as a serpent's egg,
Which hatch' d would, as his kind, grow mischievous,
And kill him in the shell. (2.1.10-34)

브루투스의 독백은 권력찬탈의 문제라는 이 극의 기본적 주제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적으로 찬탈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된다. 절대왕권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며, 그렇지 않은 권력은 곧 독재이다. 씨이저에게는 왕이 될 권리가 없으며, 그런 자가 왕좌를 탐하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Ribner 13).

이 극에서 노쇠한 그가 살해되기 직전에 보여준 오만과 노망 증상(muddlehead)은 전혀 구제될 가망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가히 희극적이다. 그는 자신을 북극성과 올림푸스 산과 같은 영구부동의 존재에 비유하고 있다: “감히 그대가 올림푸스 산을 옮겨보겠다는 거야(Wilt thou move Olympus)?”(3.1. 85)

이처럼 씨이저는 이미 너무 깊이 미몽에 빠져있어 깨어날 가망이 거의 전무하다. 브루투스로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찾을 수가 없다. 왕권에 대한 이 터무니없는 야망은 셰익스피어와 플루타크가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씨이저의 비극적 우행과 신성을 모독할 정도의 오만(hybris)이 그 정점에 이미 와 있다(Ribner 16). 따라서 밀러가

『줄리어스 씨이저』의 주제가 마치 황제에 의한 일인 독재 권력의 불가피성을 암시함으로써 획일주의와 침묵만이 로마의 평화를 담보한다고 주장하는 것(188)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씨이저의 이러한 일인 독재에 저항하는 중심적인 인물은 브루투스이다. 여기서 우리는 브루투스의 살해행위의 선택과 정당성을 고찰함으로써 그를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브루투스가 반란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의 고결한 공익정신이 아니고 캐시어스가 조작한 시민들이 그의 분발을 촉구하는 편지에 브루투스가 “부추김”(1.2.302)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브루투스의 씨이저 살인 의지가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 마룰러스와 플레비어스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캐스카로 전해들은 직후이다. 다음의 캐스카의 대사는 브루투스의 씨이저 살해 동기가 캐시어스의 부추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 극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소식인데 마룰러스와 플레비어스가 처형되었다는 것.

씨이저의 동상에서 장식물을 제거했기 때문인데, 웃기는 일이야.

웃기는 일들이 더 있긴 한데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래서

그만 가겠어.

I could tell you more news too: Marullus and Flavius, for
pulling scarfs off Caesar's images, are put to silence. Fare you
well. There was more foolery, yet, if I could remember it. (1.2.74-76)

캐시어스는 캐스카의 투박한 말투가 오히려 “그의 말에 사람들을 동하게”(1.2.90)할 수 있다고 평하는 것은 그가 이미 대중적 선동력이 있는 반란 동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호민관들의 처형소식을 캐스카로부터 전

해들은 직후 브루투스는 “동료들과 어울려서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캐시어스에게 자신의 집이나 캐시어스의 집에서 다시 회동하기를 제안한다. 이미 브루투스는 반란에 대한 결의를 품고 있었고, 이는 캐시어스의 “부추김”이 있기 전에 반란을 먼저 제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일”을 생각해 보라고 캐시어스는 헤어지면서 브루투스에게 권유하는데, 그 세상일이란 씨이저의 독재와 “동일한 계급의 인간이 고통을 받는” 로마의 현실과 그 대안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들의 대화는 반란이 유혹이나 부추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의 의식과 의지에 의한 결단에 의해서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브루투스의 제안을 듣고 고무된 캐시어스가 비로소 편지로 브루투스를 “부추기려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캐시어스: 그는 지금 어떤 과감하거나 훌륭한 과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야. 그가 어눌한 말투는 그렇지만 말이야.

이런 투박한 태도가 그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양념이 되지

이것은 그의 말에 사람들을 동하게 하고

그의 뚱한 태도는 그의 말에 구미를 당기게 하거든

브루투스: 자네 말이 그럴듯하군. 자 이번에 그냥 가기로 하구

내일, 자네가 나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면

내가 자네 집으로 가겠어, 또는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집으로 자네가 오게, 기다릴 께.

캐시어스: 그렇게 하지. 그때까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게.

CASSIUS: So is he now in execution ,

Of any bold or noble enterprise,

However he puts on this tardy form.

This rudeness is a sauce to his good wit,

Which gives men stomach to digest his words
 With better appetite. want of good manner
 BRUTUS: And so it is. For this time I will leave you.
 Tomorrow, if you please to speak with me,
 I will come home to you; or if you will,
 Come home to me, and I will wait for you.
 CASSIUS: I will do so: till then, think of the world. (1.2.287-297)

이어서 캐시어스의 반란전야의 독백이 나타난다. 이 독백에서 캐시어스가 브루투스를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와의 내일 회동을 제안한 브루투스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의 특유의 일상적인 상식으로 브루투스가 그들의 반란에 가담하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브루투스, 글썄, 자네가 고결한 인간이긴 하지만,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에
 자네의 바로 그 고결한 성품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유유상종이라, 결국 고결한 자들은 끼리 어울리게 마련이야.
 유혹에 안 넘어갈 장사가 어디 있겠어?

Well, Brutus, thou art noble; yet I see
 Thy honourable mettle may be wrought
 From that it is disposed: therefore 'tis meet
 That noble minds keep ever with their likes;
 For who so firm that cannot be seduced? (1.2.298-302)

다음에 이어지는 캐시어스의 독백은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브루투스

가 어떤 이념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사꾼’에 불과한 캐시어스의 농간에 ‘휘둘러서’ 그리고 조작된 시민의 목소리에 그의 ‘허영심’이 우쭐해져서 ‘배은망덕한 살인’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 장면은 브루투스의 성품과 그가 씨이저를 살해한 동기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냉철한, 또는 적어도 냉혹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씨이저가 내게는 원한을 가지고 있지만 브루투스는 사랑하지.
 내가 브루투스고 그가 나 캐시어스라면 그는 나를 유혹하진 못할 것이야.
 오늘밤 나는 그의 창문으로 몇 통의 편지들을 투입할 것이야.
 마치 다른 대여섯 명의 시민들의 편지인 것처럼. 로마가 마치
 그를 대단히 평가한 것처럼 꾸며서. 씨이저의 야망을 넌지시 비치면서.

Caesar doth bear me hard; but he loves Brutus.
 If I were Brutus now, and he were Cassius,
 He should not humour me. I will this night,
 In several hands, in at his windows throw,
 As if they came from several citizens,
 Writings, all tending to the great opinion
 That Rome holds of his name; wherein obscurely
 Caesar's ambition shall be glanced at (1.2.303-312)

반관의 모의가 이미 캐시어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감지될 수 있지만,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장면은 2막 1장 10연에서 34연까지 이어지며, 캐시어스의 조작된 시민들의 편지를 브루투스가 실제로 읽는 것은 45연부터이다. 이 편지들은 아주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

이 그 목적이 아니며, 브루투스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일종의 “거울”(1.2.56)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시어스의 목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브루투스의 얼굴에는 씨이저의 교만과 망상이 빔어 낼 수 있는 온갖 우행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로마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나타나 있었고, 이를 감지한 캐시어스는 그가 분기할 것을 제안할 뿐이다.

브루투스, 자네의 그 숨겨진 진가를
비추어 주어서 자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그 거울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쉽군.
지금 로마에서는 자네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는 것을 들었어.

And it is very much lamented, Brutus,
That you have no such mirrors as will turn
Your hidden worthiness into your eye,
That you might see your shadow. I have heard,
Where many of the best respect in Rome, (1.2.56-60)

반란은 2막에서 브루투스와 루시우스(Lucius)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하인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브루투스는 그의 관대한 품성을 드러내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낮이 밝으면 그가 원로원에서 씨이저를 살해하고 이어지는 펠리파이라는 싸움터로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씨이저의 비천함과 그 독재는 이런 관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공화파지도자에게 쉽사리 분노의 불길을 당기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브루투스가 잠에 깨어난 것은 캐시어스가 조작한 시민의 편지에서 나타난 함성 때문이 아니었다. 브루투스는 익명의 편지들을 읽을 때 이미 자각해 있었다.

브루투스, 그대는 아직도 자고 있는가,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라.
로마는 외쳐라, 쳐부숴라, 그리고 개혁하라!

Brutus, Thou sleep' st; awake, and see thyself.
Shall Rome, etc. Speak, strike, redress! (2.1.46-47)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어둠 속에서 반란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브루투스의 독백이 시작된다.

저들이 그 무리구나, 오 반란자들, 밤이지만
너희의 그 험악한 얼굴이 들어내는 것이 부끄럽지?
모든 악이 자유로운 밤일망정?
아, 그런데 낮이 되면 어디에서
너희의 그 흉물스런 얼굴을 감출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동굴을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관두라구, 반란자들,
차라리 미소와 친절의 가면을 쓰는 것이 나을 거야.
암흑의 신 에레부스조차 그대를 감춰주기에는
그 어둠이 얇을 것이므로.

They are the faction. O conspiracy,
Sham 'st thou to show thy dangerous brow by night,
When evils are most free? O, then by day
Where wilt thou find a cavern dark enough
To mask thy monstrous visage? Seek none, conspiracy;
Hide it in smiles and affability:
For if thou path, thy native semblance on,

Not Erebus itself were dim enough

To hide thee from prevention. (2.1.77-85)

이 브루투스의 독백은 반란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내적 수치심과 고뇌를 드러내며, 그의 고결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극 전편을 통하여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브루투스는 씨이저의 암살에 가담한 것 외에는 안토니처럼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하거나 캐시어스처럼 원칙을 포기하고 편의주의에 편승한 적이 없다. 따라서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몰려오는 반란자들을 향한 그의 조소와 독설과 저주는 사실 브루투스 자신의 의식적 갈등의 표현한 것이며, 셰익스피어가 이 장면을 통하여 반란과 씨이저의 살해의 부도덕성을 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브루투스가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살인을 자행하였다면, 이 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살인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브루투스가 고민하는 것은 씨이저의 살해가 아니라 그 수단이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의 비열성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브루투스의 원칙주의의 고뇌이다. 이러한 독백 장면을 셰익스피어가 고안한 목적은 브루투스의 고결한 품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의 빛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부끄러운 반란이라는 부끄러운 흠탕물에 그들의 손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반란자들이 씨이저의 피로 손을 씻을 때 그것은 일종의 세례식이고 희생양을 바치는 제의식이다:

우리는 씨이저의 친구지만 마찬 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의 시대를 종식시켜 버렸다.

몸을 꾸부려 씨이저의 피로 우리들의 손을 씻읍시다.

팔꿈치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칼을 담급시다.

그리고는 거리로 걸어 나가 시장까지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드높이 피가 묻어 붉은 칼을 휘두르며
외칩시다. 평화와 자유와 해방이라고!

So are we Caesar's friends, that have abridged
His time of fearing death. Stoop, Romans, stoop,
And let us bathe our hands in Caesar's blood
Up to the elbows, and besmear our swords:
Then walk we forth, even to the market-place,
And waving our red weapons o'er our heads,
Let's all cry, 'Peace, freedom, and liberty!' (2.1.105-110)

살해되기 직전의 씨이저는 다음의 장면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대로 거의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위험의 신 스스로 이 씨이저가
자신보다 더 위험한 존재임을 알 것이다.
나와 그는 같은 날에 태어난 두 마리의 사자이다.
그러나 내가 형이며 그래서 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씨이저인 나는 (의회에) 나갈 것이다.

Danger knows full well
That Caesar is more dangerous than he.
We are two lions littered in one day,
And I the elder and more terrible,
And Caesar shall go forth. (2.2.44-47)

위의 대사에서 보듯이 씨이저의 교만은 오만(hubris)이며 이 극의 비극적 배경이고(Schanzer 307), 브루투스가 씨이저의 살해하는 동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씨이저가 자신을 "고정불변의 북극성"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가장 역설적이다.

그렇지만, 나는 확고부동한 사람이야,
마치 진실로 확고부동하여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우주에 버금가는 자가 없는 그 북극성처럼.

But I am constant as the northern star,
Of whose true-fixed and resting quality
There is no fellow in the firmament. (3.1.61-3)

씨이저는 브루투스에 의해 살해되기 전에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이미 살해되었는지도 모른다. 세계를 제패한 기지와 용맹이 무력화된 것은 그의 노쇠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만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광의 정점에서 이미 그 영광과 권력에 중독이 되어 있다. 씨이저의 비극은 권력에 중독된 자의 허황된 망상과 허풍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로마 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고 명예로운 시민들을 노예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지는 메틸루스(Metellus)의 탄원 장면은 씨이저의 오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메틸루스는 추방당한 동생을 석방을 허락해줄 것을 씨이저에게 간절하게 탄원한다. 브루투스와 심지어 자존심 강한 캐시어스조차 무릎을 꿇고 메틸루스의 탄원을 씨이저가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지만, 씨이저는 자신의 결정에 결코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요지

부동의 북극성”에 비유하면서 육신과 피를 가지고 있는, 현세적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은 영구불변의 천체와 같은 존재임을 과시한다.

나는 사람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만
그렇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자기 위치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인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점을 좀 보여주지. 바로 다음 경우지만,
즉 심바는 유배지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그 것.
그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요지부동이야.

And men are flesh and blood, and apprehensive;
Yet in the number I do know but one
That unassailable holds on his rank,
Unshak'd of motion; and that I am he,
Let me a little show it, even in this,
That I was constant Cimber should be banished,
And constant do remain to keep him so. (3.1.63-73)

그러나 브루투스는 “한 줌의 먼지”(3.1.116)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독재자의 허풍을 비꼬고 냉소하면서 씨이저의 육체와 의지도 “확고부동”하거나 “영원불변의 북극성”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육체와 의지와 똑 같이 다만 너무나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브루투스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한 씨이저의 허망한 야망의 잔해 앞에 서서 영원에 대하여 사색하면서 영원한 것은 역사라는 것을 언급하기를 잊지 않는다. 인간의 허

망한 욕망과 교만은 영원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을 예언한다. 씨이저를 살해한 뒤 브루투스는 씨이저의 육체가 흘리는 피는 ‘인구에 회자’되면서 후세의 교만한 자들에게는 경고와 교훈이 될 것을 예상한다.

도대체 몇 번이나 피를 흘리는 씨이저의 모습이 한갓 비웃음거리로
인구에 회자되겠는가? 그는 지금 먼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폼페이 무덤 옆에 나란히 누워있을 따름이니

How many times shall Caesar bleed in sport,
That now on Pompey's basis lies along,
No worthier than the dust! (3.1.116)

리브너는 브루투스의 비극은 반란에 가담한 동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씨이저를 살해한 사실의 그 도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브루투스는 내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13). 그러나 브롬은 이와 반대로 브루투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침해한 독재자를 정당하게 처리할 합법적인 방법을 브루투스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75). 이 딜레마에서 브루투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가 보호되는 도덕성이 아니고 로마 공화국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선택하였다. 씨이저를 살해를 결심할 당시의 고뇌와 유사하다. 이 때도 그는 개인적 감정을 꺾는 대신 로마 공화국의 희망을 선택했다.

알렉산더 웰쉬(Alexander Welsh)는 씨이저의 살해에서 비롯된 브루투스의 딜레마를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명예란 ‘초도덕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브루투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브루투스는 명예로운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502-510).

명예는 자유로운 선택임과 동시에 구속이다. 명예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적 동기를 결합시킨다. 개인과 공공의 동기가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이 브루투스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졌다. 로마 사회의 공화주의적 이상이 브루투스의 내면에 침투하여 그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후원자조차 살해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행동하게 한다.

그를 죽여야만 해; 전체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로서는 그에게 칼을 휘둘러 능멸할 사적인 이유가 없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되고 말 거야.

It must be by his death; and for my part,
I know no personal cause to spurn at him,
But for the general. He would be crown' d. (2.1.10-12)

브루투스의 살해행위는 선과 악의 범주를 초월한다. 브루투스를 지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와 같이 초윤리적이며 심지어 이성을 초월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명예 이데올로기이다(Welsh 508-509).

로마를 위하여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살해하였으므로
조국이 나의 죽음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씨이저를 살해한 바로 그 칼로 제가 죽을 것입니다.

as I slew my best lover for the
good of Rome, I have the same dagger for myself, when it
shall please my country to need my death. (3.2.40-43)

브루투스는 그가 필리파이에서 자살하기 직전 다음과 같이 그의 살해 동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살해 동기는 로마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 뿐이며 사적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행위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씨이저, 이제 편안히 잠드시오,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였던 것이 아니었소.

Caesar, now be still;
I kill'd not thee with half so good a will (5.5.50-51)

이와 같은 그의 진술을 죽기 전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의 명쾌한 논리적 전개를 깨뜨리는 일이다. 그의 죽음은 그와는 반대로 그의 단호함을 보여준다. 그는 조국과 시민을 위한 그의 헌신을 죽음 이상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씨이저의 살해에 대해서 초연하여 현실적인 의미에서나 도덕적인 의미에서나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았다.

자살은 로마극에 두드러진 한 주제로서 독재자에 항거하는 하나의 방어수단이다. 명예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살은 이들 로마 역사극에서 명예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브루투스는 사랑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것이 시민 전체를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선 한 쪽 눈으로는 명예심을, 다른 한 쪽 눈으로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게. 나로서는

그 어느 쪽이든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신들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 명예를 더 존중하도록 이끌고 있으니까.

If it be aught toward the general good,
Set honour in one eye, and death i' th' other,
And I will look on both indifferently;
For let the gods so speed me as I love
The name of honour more than I fear death. (1.2.85-88)

생명보다도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브루투스는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위험조차 그에게는 “한가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그냥 스치고 지나갈 뿐이므로”(4.3. 66-69)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mission)에 대한 자신의 정의로운 동기(just cause)를 확신한다. 죽음을 초월한 순교자(martyr)의 모습이다. 그에게는 냉혈한 살인자 이상의 도덕적 품성이 있으며 필리파이의 브루투스는 죽음을 초월한 그 기상이 여전히 넘치고 있을 뿐이다.

IV. 편법과 이념

인간의 역사는 신의 섭리나 냉혹한 역사주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발전되어 왔다. 토인비(Toynbee)는 문명의 발생(the genesis of civilization)을 환경적인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에서 시작되며, 인간은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다양한 시대와 역사의 장을 자신들의 위대한 행위를 위한 무대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의 지배(mastery)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3). 이념이란 이러한 응전에 동원되는 하나의 가치적 목적이며 편법이란 이러한 목적이 하나의 도구나 편리한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도전과 응전들이 시간의 지층들과 함께 쌓이면 역사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씨이저』는 인간의 고결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치열한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주제가 되는 웅장한 비극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브루투스(Brutus)는 신의 계시에 따라 행동한 노예적인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다. 이 극은 부패한 로마 공화정이라는 사회, 정치적 환경에 도전하고 저항한 인간의 이야기와 그의 영웅적인 삶과 죽음을 다룬 전형적인 비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극에서의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을 희롱하는 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존재이다.

이 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독재의 편법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그 재앙이 따르며 신은 권력의 오만에 빠진 자를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편법으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를 자행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이절은 이것은 씨이저의 살해와 필리파이 전투의 결과와 브루투스의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운명 자체에도 인간의 교만과 관련된 신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00). 안토니가 로마 포럼에서 씨이저에게 왕관을 바치던 날, 씨이저의 졸도 사건이 일어나는데(1.2.254), 그의 간질병을 ‘신성한 병’(sacred disease)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병이 교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신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씨이저는 편법으로 로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최후를 맞이하고, 안토니는 필리파이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원한 비열한 편법주의로 레피두스와 비슷한 운명에 처하여 죽게 된다. 그리고 옥타비우스가 이어받은 로마 제국 또한 그 위대함을 스스로 잃고 멸망한다. 그들이 편법과 독재로 얻은 것은 로마 공화국의 죽음과 그리고 로마 자체의 멸망뿐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신의 재앙을 자초하는 등장인물들을 거의 기하학적인 정확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로마 포럼(Forum) 광장에서의 연설과 필리파이 전투가 종결된 직후 옥타비우스(Octavius)와 내전 후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안토니의 편법과 그의 씨이저리즘을 철저하게 부각하면서 로마 공화국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들은 바로 씨이저와 안토니, 그리고 로마의 군중들이다.

안토니의 편법은 장례식 연설에서도 드러난다. 브루투스는 약속한대로 안토니가 씨이저의 주검이 놓여있던 포럼의 연단 위에서 연설할 기회를 부여하고 떠난다. 그러나 안토니는 “씨이저의 주검을 애도”(3.2.55)하기로만 한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군중들을 선동하는 기회로 삼는다. 브루투스의 연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안토니의 연설은 격정적이며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끊임없이 약속하여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까지 흘리면서 민중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청중의 본질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며, 남성적이지 않고 여성적이다. 이 모든 천민 심리학은 씨이저의 정치학교에서 안토니가 이미 배웠던 것들이다(Bloom 75-83). 민중은 순식간에 브루투스를 잊어버리고 안토니를 선택한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공화정의 역사가 한 모사꾼과 비천한 민중의 탐욕과 무지의 야합으로 그 종말을 고한다. 이 순간의 로마 군중의 선택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며 이는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Ribner 12).

내전이 종결된 직후 옥타비우스와 함께 내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토니는 로마 포럼에서의 로마 시민을 사랑하고 씨이저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 안토니가 아니다. 안토니는 씨이저리즘의 화신으로 편법과 불법의 냉혈한이며 일종의 사기꾼임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는 레피두스(Lepidus)의 두 동생을 죽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누이동생의 아들을 살명부에 올리는 일에 간단히 동의한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공언한 로마 군중을 위해서 처음으로 베푸는 일은 포럼에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속했던 씨이저의 유언에 쓰인 유산의 몫을 깎는 일이다:

레피두스: 자네 여동생 아들인 푸브리우스가 죽는 조건이라면

좋지. 내 동생 죽음에 동의하지

안토니: 좋아. 난 그 녀석을 싫어하지. 그런데, 레피두스,

씨이저의 저택으로 가서 그의 유언장을 가져오게

그래서 유산 중에서 얼마를 깎아낼지를 결정하자구.

LEPIDUS: Upon condition Publius shall not live,

Who is your sister's son, Mark Antony.

ANTONY: He shall not live; look, with a spot I damn him.

But, Lepidus, go you to Caesar's house;

Fetch the will hither, and we shall determine

How to cut off some charge in legacies. (4.1.1-9)

삼두정치의 일원이었던 동료장군인 레피두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토니의 씨이저리즘은 편의주의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심부름에나 어울리는 자로서, 지배권을 3등분하여 그에게 몫도 줘야 하는지”(4.1.11-14)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그는 “말썽을 일으킬 만한 일을 그에게 맡긴 것뿐이며 그러나 목적지까지 왔으므로 이제 이 보잘 것 없는 당나귀 같은 인간은 풀어주어서 마을 공동 목장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풀어줘야 한다.”(4.1.18-27)고 제안하면서 “경험이 있고 용감한 군인”(4.1.28)인 그를 삼두정치 그룹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 씨이저가 죽자마자 그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안토니는 씨이저의 죽음에 애통해하고 로마의 민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로마 포럼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는 씨이저의 주검도, 그에 대한 추도의 눈물도, 그리고 민중에 대한 사랑도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편의주의의 가장 가증스런 면모를 적나라하게 실증해 보이고 있다.

반면, 셰익스피어는 브루투스의 실패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하나의 위대한 비극적 주인공을 발견하였고, 플루타크의 『영웅전』에서의 그에게 불리한 여러 암시적인 내용들을 극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그 예로써, 『영웅전』에서 브루투스는 씨이저의 사생아라는 암시가 있었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존속살해의 문제를 무시해 버렸다. 또한 플루타크는 브루투스의 개인적 야망을 강조하여 캐시어스와 집정관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지만, 셰익스피어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극의 주제와 그가 호감을 가지고 구현하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브루투스의 유언과 안토니우스의 추도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로마 공화국의 부활을 위한 브루투스의 결단과 씨이저의 살해 행위는 초도덕적이며 심지어 초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명예라는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Welsh 508). 브루투스와 캐시어스가 이끄는 로마 공화파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로마 공화정은 그 종말을 맞이한다. 이것은 그들 자신과 로마 공화정의 비극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좌절이다.

브루투스와 캐시어스는 공화주의라는 이념적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전자는 독재 정부를 증오했고, 후자는 독재자를 특히 증오했다. 브루투스는 로마적 정통성과 질서를 존중하였고, 캐시어스는 비슷한 사회, 정치, 군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씨이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브루투스는 반란 과정에서 결코 자신의 신조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한 반면, 캐시어스는 편법이 반란의 성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투스는 쉬운 길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길은 거부하였다. 어렵고 위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로마인다운 경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는 우둔하여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나이 대장부”(5.5.75)로서 항상 정도를 택하였을 뿐이다. 캐시어스가 빈틈없는 현실적인 군사전략가라면 브루투스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선구자적 영웅이었다. 브루투스가 저지른 실수와 약점들은 사실 그의 고결한 품성과 로마인은 신념의 실천적 기질 때문이었다. 그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정도와 이념적인 자신의 신조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는 너무나 이상적인 나머지 대중과 정치적 현실에 융합될 수가 없었고 그것이 반란의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씨이저처럼 군중을 뇌물로 매수하거나 안토니 같은 모사꾼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브루투스가 캐시어스의 전략적으로 현명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의 살해를 거부한 것과 그에게 씨이저 장례식 연설을 허용한 것 등은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 로마인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신뢰감과 위험하지만 정정당당한 길을 택한 그의 대장부다운 선택 때문이었다.

안토니우스를 살려주기로 한 장면에서 캐시어스는 안토니오가 “용의주도한 책략가(shrewd contriver)”(2.1.159)이므로 살해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브루투스에게 건의하지만 브루투스는 이 건의를 물리친다. 안토니는 씨이저의 “팔다리”(2.1.163)에 불과하며 이런 팔다리까지 자른다는 것은 반란이 지나치게 “피비린 냄새”(2.2.162)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캐시어스가 씨이저에 대한 안토니의 충성심이 대단히 깊다는(2.1.184) 점을 지적하면서 여전히 그의 존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자 성실하고 진지한 브루투스는 “그는 놀이나 즐기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려 지내므로”(2.1.185-189) 대단치 않은 존재로 치부하면서 캐시어스의 제안을 물리친

다. 캐시어스가 만약 브루투스의 입장에서 반란을 지휘했다면 반란은 성공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할 만큼 캐시어스의 상황판단은 정확하다. 그러나 캐시어스의 전략에 따랐다면 필리파이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로마 전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로마 시민은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학살극을 진심으로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과 반란의 성공은 부분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로마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얻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파이 전투에서의 패전은 브루투스가 안토니를 과소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황을 오판한 캐시어스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 캐시어스의 부분 전략은 옳았지만 브루투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술이 더 현명하였다. 브루투스는 필리파이 패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로마인의 마음을 영원히 얻었기 때문이다.

씨이저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로마 포럼에서 로마 군중들 앞에서의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안토니에게 브루투스가 허용한 경우에서도 캐시어스는 브루투스의 판단에 반대한다. 그리고 군중들이 안토니의 연설에 “선동될”(3.1.232-243) 것을 미리 예견한다. 브루투스는 이 제안 또한 거절한다. 로마 군중에게 자신들이 씨이저를 살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이며, 안토니에게도 “씨이저에 대해서는 모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우리를 비난하는 일을 없도록 약속 받는 것이 더 이로울 것”(236-247)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란군에게 파멸을 가져 온 치명적인 판단이며, 이 경우 캐시어스의 판단과 우려는 적중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포럼에서 안토니에게 연설할 기회를 준 것이 결정적인 재앙을 초래한 책임은 브루투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브루투스가 포럼에서 로마 군중의 이성애 호소한 연설은 그가 로마 군중의 비천함을 인식하지 못한 실수로만 치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그의 이성적인 연

설은 그의 진지함과 로마 민중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자신의 연설을 마치고 안토니의 연설을 감시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브루투스의 실수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한 교활한 안토니와 비천한 로마 군중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브루투스의 행동은 로마인에 대한 믿음과 정정당한 품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는 안토니의 교활함과 로마 민중의 비천함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이 극에서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캐시어스가 이 반란을 지휘했다라면 필리파이 전투에서 반란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란의 실패를 브루투스의 멍청한 머리(Ribner 11) 탓으로만 단순화하기에는 극의 논리적 전개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멸망이 멍청한 브루투스의 실수 때문에 멸망하였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니고 하나의 해프닝이거나 실소할 수밖에 없는 희극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브루투스는 “나는 오늘의 패전 때문에 옥타비우스와 안토니가 비열하게 얻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었다”(5.5.36-38)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이다. 실수로 영광을 얻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이다.

필리파이 전투의 패인은 브루투스의 실수보다 캐시어스가 전황을 오판한 것이 더 결정적이고 직접적이다. 필리파이에서의 실제 전투 상황은 브루투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필리파이 전투에서 브루투스가 패전한 직접적인 원인은 브루투스의 작전 명령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은 캐시어스에게 있다. 캐시어스는 시력이 나빠서(5.3.21) 아군에게 유리한 전황을 거꾸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둘러 자결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한 쪽 날개를 잃은 뒤부터 유리했던 브루투스 진영의 전황도 덩달아서 급속도로 역전되었다(Siegel 108-109). 이와 같이 브루투스가 지도자로서 무력하게 된 것은 정도를 택하여 캐시어스와 안토니처럼 편의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자

신의 이념적인 신조에 따라 시종 일관 원리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Maus 1527). 브루투스는 “비열한 승리”를 위하여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 그를 지배하는 판단의 기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항상 로마적인 원칙이었다. 경쟁자이며 전쟁터에서는 적이 된 안토니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위험하지만 사리에 맞고 로마인다운 명예로운 선택이다. 로마 시민들은 브루투스와 안토니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건 그들의 권리이기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로마 공화국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결과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명분)에서는 승리한 셈이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로마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로마 공화국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그는 로마와 전 인류를 지배한 셈이다. 그는 승리자이다.

브루투스는 안토니나 씨이저처럼 이념을 그들의 야망을 추구의 수단으로 삼거나 캐시어스처럼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념을 도구화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전략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전체적 공익이 사사로운 애정에 우선한다. 씨이저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 공화국인 씨이저를 살해한 그의 선택은 이지적이고 영웅적이다. 이런 점에서 브루투스는 이념이 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이다. 그가 캐시어스의 현실적 작전에 따랐다면 필리파이 전투에서는 패전하지 않을 수 있고, 안토니처럼 “더러운 승리”를 훔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잠시 로마의 영웅이 되거나 지배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순간의 승리보다는 대의를 위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다. 그는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제단에 씨이저의 피와 함께 자신의 생명도 바치게

된다.

대신 사냥개가 먹을 만한 고깃덩어리로 그를 토막 내는 것이 아니고,
제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그를 요리하자.

Let's carve him as a dish fit for the gods,
Not hew him as a carcass fit for hounds. (2.1.172-173)

씨이저는 자신이 “결코 동요되지 않는”(3.1.69) 존재임을 과시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역설적인 희극을 연출하지만, 이 극에서 실제로 동요되지 않고 로마인의 길을 간 등장인물은 브루투스가 유일하다. 브루투스는 그 “결코 동요되지 않는”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필리피에서 패전하여 로마 공화국의 수호에 실패한다. 그러나 씨이저가 편법에 의하여 세계를 얻고도, 결국 모두 잃고, 한 줌의 “티끌”(3.1.116)로 폼페이 무덤 반석 곁에 누워있는 반면, 브루투스는 영원한 명예를 얻는다.

씨이저는 브루투스의 자결을 스토아철학(Stoicism)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브루투스의 자살은 스토아 철학의 신조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죽음 못지않게 살아남는 것이 끔찍하게 여겨질 정도로 비겁한 행동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결이 오히려 명예와 의무라고 생각되었다(128). 그는 비록 패하였지만 불멸의 명예를 얻었으며, 브루투스는 독재에 저항한 영원한 자유정신(freedom)의 상징이다(Bloom 105). 브루투스가 오랜 로마적인 가치와 질서와 전통을 파괴하는 부패한 시대와 그 시대가 낳은 세력들과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정한 로마인이 아닌 것이다. 씨이저가 오욕 속에서 생을 마감 했다면 브루투스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부활한다.

따라서 이 극에서 마지막까지 영광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사람은 브루투스뿐이다. 그는 『줄리어스 씨이저』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였던 만큼 승리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였다. 실속과 명예 중 그는 항상 생명과 위험을 무릅 쓰고 명예를 선택하였다. 이런 위험을 거부하고 명예와 영광을 획득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그가 영원한 승리를 얻은 비결이다. 자신의 이념을 실행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편법을 위해서 이념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브루투스의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씨이저리즘이 동원한 편법과 로마 군중 욕망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것은 로마의 멸망과 영원히 노예적인 삶뿐이었다.

브루투스는 펠리파이 언덕의 결전을 앞두고 캐시어스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자신은 지금 인내심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다만 지상에 있는 우리는 지배하는 “어떤 지고한 힘을 가진 신의 섭리에 따를 것(stay the providence of some high powers)”(5.1.107)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의 섭리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승리를 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결전을 앞두고 인간적인 소명을 다한 그는 이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신의 내리는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V. 결론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씨이저』는 작품 해석상의 다양한 관점 때문에 수세기 동안 비평적 논란이 거듭되어왔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관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일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 문제극이다. 이것은 이 극의 역사적 배경과 사료를 제공하고 있는 로마 역사 자체에 대한 역사가들의 양시론적인 입장과 관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양극성을 띤 애매모호한 관점들을 자신의 극의 전개에 반영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관점만 편향되게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모방한 것은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로마 역사를 근거로 다층적 관점에서 극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려는 정치적 주제를 극의 서막에서부터 막이 내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작품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극의 서막에서 씨이저 동상 훼손이라는 사소한 일로 호민관들이 처형되는 것은 씨이저의 독재가 이미 로마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동시에 민중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민적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로마 공화국의 멸망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극은 씨이저를 권력에 중독되고 교만에 빠져있는 독재자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브루투스에 의해 살해되어야만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씨이저는 자신을 올림푸스 산과 북극성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이 피와 육신이 없는 영원불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려 하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극은 냉혹한 정치 모사꾼으로서 연출하는 안토니의 교활한 대중 선동 장면, 그의 이면에 숨겨진 그리고 시인 시너를 살해하는 군중들의 광기를 묘사함으로써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운명이 편법과 미천한 하층민중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역설을 통렬하게 묘사한다. 이 극에서 묘사되는 안토니의 편법주의는 씨이저리즘의 비천하고 냉혈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인간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한 감정과 심지어 자신의 조국 로마까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씨이저리즘의 속물근성을 철저하게 보여준다.

한편, 브루투스와 캐시어스 그리고 원로원 공화파 반란군들은 로마 공화국을 지키려는 싸움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이 패배가 로마적 전통과 가치를 회복하고 방어하려했던 이들의 몸짓이 무익해 보이게 하지는 않는다. 브루투스는 독재에 저항한 영원한 자유정신의 상징이다.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승패를 초월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숭고한 의무이며 권리이다.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행위는 위난에 처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행위는 초도덕적이며 심지어 초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로마 민중들에게도 못 미치는 그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역사적 안목 때문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그는 매우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당시 공화정 체제하에서 시민 출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찬탈해위이고 따라서 반역행위라고 확신하였다.

둘째, 브루투스는 가장 가까운 후원자를 살해한 것이 매정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로마 공화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그 운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신의와 애정보다 위난에 처한 로마의 운명을

구하는 임무가 더 우선한다는 그의 신념은 정당하였다.

셋째, 반란은 명예로운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인 시도가 이미 좌절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브루투스가 씨이저를 살해한 행위는 비열한 행위가 아니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브루투스가 필리파이 전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극의 주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안토니와 옥타비우스가 비열한 승리로 얻은 영광보다 자신은 이날 패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브루투스의 유언은 영광과 명예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열한 편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의 유언은 씨이저의 편법과 안토니가 거둔 필리파이의 비열한 승리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제를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극의 결말은 로마 민중들은 로마 공화국의 멸망의 한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극과 로마 역사 자체는 독재와 편법이 초래한 것은 로마 공화국의 죽음과 로마 자체의 멸망뿐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브루투스의 유언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줄리어스 씨이저』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중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인물은 브루투스뿐이다. 그는 목적을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목적을 위해서 이념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이념을 버리지 않으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조차 피해가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시종일관 패기에 찬 신념으로 죽음과 맞서서 싸운 진정한 대장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인 용 문 헌

- 배 신 환. “*Julius Caesar*: 자유의 좌절.” 『셰익스피어 로마劇의 政治主義』,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9.
- 송일상. 『Shakespeare의 Roman Plays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1995.
- 이 환 태. “이데올로기의 구조로서의 씨이저리즘.” 『Shakespeare Review』. 38 (2002): 217-248.
- 홍 유 미. 『Julius Caesar: 이행기 로마의 정치비극』.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 Bloom, Allann David. *Shakespeare's Politics*. London: Basic, 1964.
- Bradley, A. C. “Brutus and Hamlet.” *Julius Caesar*. Ed. Peter Ure. London: Macmillan, 1969
- Durband, Alan. *Julius Caesar Made Easy*. Cheltenham: Thornes, 1990.
- Fortin, Rene E. “Julius Caesar: An Experiment in Point of View.” *Shakespeare Quarterly* 19 (1968): 341-347.
- Hartsock, Mildred. “The Complexity of *Julius Caesar*.” *PMLA* 81 (1966): 56-62.
- Klein, David. “Has Cassius Been Misinterpreted?” *Shakespeare Association Bulletin* 14 (1939): 27-36.
- Maus. Katharine Eisaman, ed. *The Norton Shakespeare*. New York: Norton, 1996.
- MacCallum, M. W. *Shakespeare's Roman Plays and Their*

Background. London: Macmillan, 1967.

Miller, Anthony. "The Roman State in *Julius Caesar* and *Sejanus*."

Jonson and Shakespeare. Ed. Ian Donaldson.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1983, 179-201.

Proser, Matthew N. *The Heroic Image in Five Shakespearean Tragedies*. Princeton: Princeton UP, 1965.

Ribner, Irving. "Political Issue in *Julius Caesar*." *JEGP* 56 (1957): 10-22.

Rabkin, Norma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New York: Free, 1967.

Schanzer, Ernest. "The Problem of *Julius Caesar*." *Shakespeare Quarterly* 6 (1955): 297-308.

Siegel, Paul N. "Shakespeare's View of Roman History." *Shakespeare's English and Roman History Plays: A Marxist Approach*. Madison: Rutherford, 1986.

Welsh, Alexander. "Brutus is an Honorable Man." *Yale Review* 64 (1975): 496-513.